

우리나라 복분자딸기의 증식 및 재배기술

김세현, 정현관, 장용석, 한진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Cultivation Techniques and Propagation of *Rubus coreanus* Miq.

연구목적

식·약용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우리나라 자생 복분자딸기의 선발클론을 대상으로 종자발아, 근삽, 선단부 취목 및 재배적 특성을 구명하여 복분자딸기 자원에 대한 특성 검정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구내에 조성된 클론보존원의 227개체 중 우량개체로 선발한 17개 클론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자 발아촉진 시험을 위하여 파종에 사용한 종자는 7월에 채취한 완숙된 종자로 건조+습사저장, 상온습사저장, 저온습사저장, 노천매장 처리 후 GA₃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발아 특성을 조사하였다. 무성증식법 구명을 위한 근삽수는 클론별 및 시기별로 근삽하여 활착율과 처리별 생장특성을 조사하였으며, 클론별로 발생한 줄기에 대한 선단부 취목 활착율을 조사하였다. 복분자딸기 수확량 증진을 위한 결과모지유도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줄기절단 시기, 높이 및 줄기수를 각각 4개 처리구별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복분자딸기의 번식은 종자파종, 줄기삽목, 뿌리삽목, 선단부 취목(tip layering) 등이 모두 가능하였지만 특히, 뿌리삽목, 선단부 취목이 가장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분자딸기 종자의 발아촉진을 위하여 건조+습사저장, 상온습사저장, 저온습사저장, 노천매장 처리 후 GA₃를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저온습사저장 후 GA₃ 500mg/l 처리구에서 76%가 발아되어 가장 높은 발아율을 보였으며, 종자 처리조건에 따라 발아율 차이가 있었다.

무성증식법 구명을 위하여 처리별 근삽을 실시하여 활착율과 묘고 생장을 조사한 결과, 근삽 시기는 2월 20일경에 실시한 처리구가 98%의 활착율과 24.6cm의 묘고 생장을 보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클론에 따라 38~98%의 활착율을 보여 클론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선단부 취목은 봄에 발생한 줄기가 자라 8~9월경에 땅에 닿으면 줄기의 끝 부분이 땅속으로 파고 들면서 뿌리가 내려 1~5개의 새로운 개체로의 육성이 가능하였다.

복분자딸기 수확량 증진을 위한 결과모지 유도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줄기 절단시기, 줄기높이, 줄기수별 특성을 조사한 결과, 처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줄기절단 시기는 7월 12일, 줄기높이는 90cm, 줄기수는 4~5개로 처리하였을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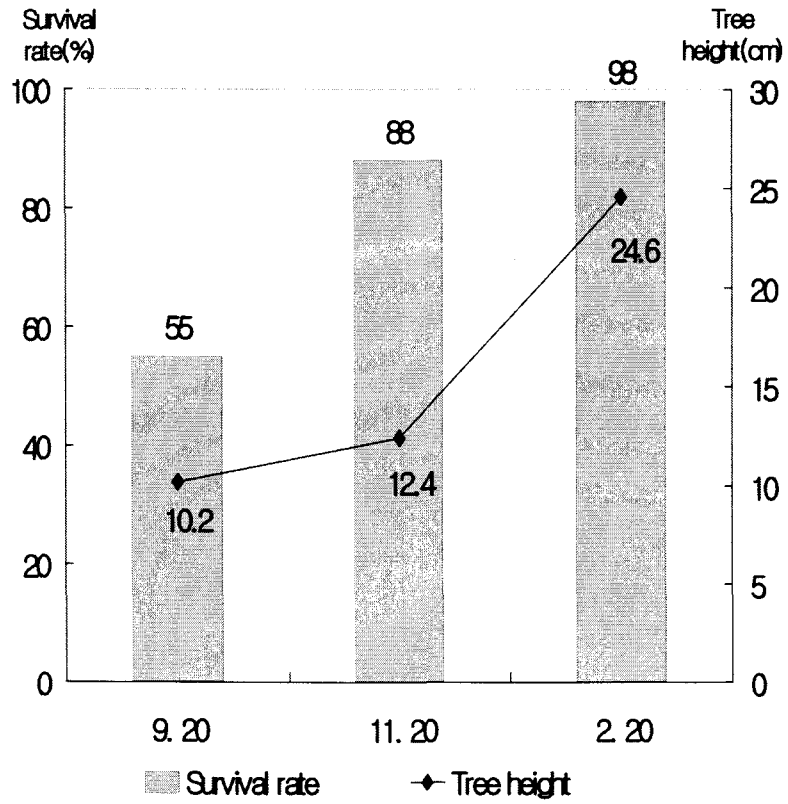


Fig. 1. Effects of cut planting time on survival rate and tree height in root cutting for *Rubus coreanus* Miq.